

우리 마을 씨앗도서관 만들기

금창영*/농민 · 김시용/식생활교육홍성네트워크

오도/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신소희/협동조합 청춘

연구 필요성

씨앗은 농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농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니 농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하는 것이 씨앗이다. 그러니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상과 현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젊은 농부들이나 귀농자들은 씨앗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양은 미미하고 씨앗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세련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지금 시골에서는 농사규모가 커질수록 씨앗을 받아 농사짓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수시로 씨앗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씨앗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은 소수이다. 연구자들이 현실을 모르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농민들이 씨앗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일까?

언제 또다시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농민들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씨앗을 갈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계몽하려고 글을 쓰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들이 정작 농사를 짓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

* **금창영**: 농민. 홍성자연재협동조합 이사장. 충남 홍성에서 130여 가지 품종을 농사짓고 있다. 홍성지역에서 씨앗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매뉴얼 연구를 통해 씨앗의 보급 확산을 위해 씨앗도서관이 지역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연구했다.

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최근에 씨앗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도시 농업인이나 모임과 단체들이 많이 늘었다. 지자체에서도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에 한 두 번 행사로 씨앗 나누는 일을 하고, 교류하는 범위도 전국에 걸쳐 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수시로 지역 씨앗을 수집, 관리, 보급하며 가능하면 지역 범위도 한 개의 시·군이 적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 씨앗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많은 이들이 지역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게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와 마음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하여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진행방식은 다르겠지만 한 마을에서 씨앗도서관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하여, 개관을 준비하고, 지역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한 경험은 각 마을에서 씨앗도서관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1. 흥동지역 소개¹⁾

충남 홍성군 흥동면은 많이 알려진 마을이다. 물론 책이나 글에서는 좋은 내용 위주이고, 정작 그 안에 사는 이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좋은 마을이기는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르다고 얼마나 다르겠는가?’ 정도가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마을에는 40여 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에서부터 100여 개 이상의 모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과 관련된 모임만을 신경쓰다보니 그만큼이나 되는지는 실감

1) 충남 홍성군 흥동에 대한 책이나 기사, 논문은 많이 나와 있는 편이다.

갯골생태농업연구소, 『우리마을입니다』, 그물코, 2010.

충남발전연구원+흥동마을 사람들, 『마을공화국의 꿈 흥동마을 이야기』, 한티재, 2014.

김정섭,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흥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집 2호, 2013.

김정섭·조미형, 「농어촌의 지역사회복지와 협동조합: 체계와 생활세계를 가로질러」, 『농어촌복지연구』 11호, 2013.

하지 못하고 다만 책 읽는 모임이 15개 정도가 되는 것을 보면 모임이 많기는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씨앗도서관과 관련하여 언급할 부분은 지역에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모습이다. 흥동에서는 모임이 쉽게 만들어진다. 누군가 하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동의하는 이들 대여섯 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쉽게 만들어지는 모임들이니 또 쉽게 사라진다. 만약 큰 목표를 가지고 모였더라도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남다르다면 그렇게 모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저쪽에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참석하고, 흩어지면 그대로 있다가 필요하면 내가 모임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씨앗도서관도 이런 지역적 배경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개관까지 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2. 씨앗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

이 장에서는 씨앗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모임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만들자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다룰 것이다. 처음부터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시골에서나 힘든 과정 없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씨앗도서관을 고민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임의 성격변화는 다른 지역에서 씨앗도서관에 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유용할 것이다. 이에 모임의 구성원이 나 논의 내용, 성격의 변화에 주목하길 바란다.

가. 첫 번째 모임

지금에서야 흥성씨앗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생겼지만 2010년 초에 첫 모임을 가질 때는 이름이 없었다. 그저 ‘씨앗에 관심 있는 이들의 모임’이었다.

몇몇 사람이 농사와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이루어졌다. 첫 모임의 구성원은 귀농자와 농업이나 생태, 식물에 관심 있는 이들이었다. 지역민은 없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구성원이 지인을 데려올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된 모임이었다.

대략 2주에 한 번씩 만났고, 만남의 주제는 ‘농사에서 씨앗의 중요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로 본인이 생각하는 씨앗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

임이 시작되었고, 동영상도 같이 보거나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정도였다. 모임은 풀무학교 전공부²⁾나 여농센터³⁾를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당시 모임에서는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전공부가 가진 씨앗과 모임 구성원이 가진 씨앗을 모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비록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씨앗의 분류와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제법 진행이 되어 온라인상에서 내용이나 사진을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모임은 3월이 넘어서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모임의 성격이 학술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지만 식물의 분류체계나 유전법칙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둘째, 농사철이 다가왔다.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삶을 사는 이들이라 농번기에는 모임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시골의 현실이다. 모임의 한 축이 귀농자들이다 보니 3월이 넘어서면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대부분 구성원이 이후 모임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농사의 일부를 토종 씨앗으로 하고 싶은 이들이나 전공부에서 유기농업을 배우는 학생들, 평소에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 씨앗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이후 이 모임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하지도 않았고, 합의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첫 번째 모임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씨앗에 대해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나. 두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은 다음 해인 2011년에 시작되었다. 연초 겨울이었다.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었지만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다. 당연히 씨앗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였지만 처음 모임과 다른 점이라면 지역 농민도 몇 사람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모임의 진행은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신이 농사짓는 씨앗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

2) <http://www.poolmoo.net/>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90번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환경농업전공부 (이하 전공부).

3) <http://cafe.daum.net/yeonongcenter>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이하 여농센터).

였다. 이렇게 성격이 변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모임의 경험에서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농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이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대부분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이들이었다.

당시에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씨앗을 합의하여 구성원들이 생산하고 주변으로 나누자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시식회를 한다거나 주변 씨앗을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씨앗보급소를 만들자는 합의도 하였다.

각 씨앗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과 우리가 사는 지역을 GMO-Free지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직화하여 토종종자로 재배한 농산물을 검인하고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바람이나 생각을 나누는 수준이고,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 공감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한 두 가지 일은 첫째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둘째 씨앗나눔 행사를 한 것이다.

그 당시 정한 주제는 양파였다. 양파 씨앗은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채종이 꽤나 어려운 작물이기에 양파 채종을 성공한다면 다른 씨앗 채종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며, 양파 씨앗을 지역에 보급한다면 호응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비록 큰 진전은 없었지만 양파 재배법, 양파 채종 기법, F1 육종방법, 우리나라 양파재배의 역사, 외국 재배 사례 등을 나누어 자료조사를 하였다.

비록 일회성이었지만 씨앗나눔행사는 씨앗도서관의 단초가 된 중요한 사건이다.

모임 구성원들이 각자 나누어 줄 수 있는 씨앗을 조금씩 봉투에 담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씨앗과 관련된 모임에서 지금도 하는 방식으로 3월 초 동네마실방 뜰⁴⁾에서 2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씨앗을 빌려 가는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나누어주는 씨앗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행사가 끝나고는 알 수 없는 허망함이 있었다. 그것은 준비과정이나 씨앗을 빌려가는 이들의 호응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의 인식 때문이다.

결국 씨앗나눔 행사는 상시적인 씨앗나눔이 이루어져야 하며, 씨앗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일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씨앗보급소가 필요했다.

4) <http://hongseongcb.net/cafe/index.html>

물론 구체적인 설립방법이나 운영계획은 없었다. 그저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정도였다. 하지만 두 번째 모임 역시 씨앗나눔 행사의 아쉬운 기억과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다. 세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은 2013년 초에 했다. 세 번째 모임부터는 모임을 개방하지 않고, 3명 정도가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에 씨앗보급소를 만드는 목표를 함께하는 이들이 모였다.

구성원은 의식적으로 젊고 추진력이 있으며, 씨앗에 관심이 있는 이들로 짜졌다. 또한 개인 자격보다는 씨앗과 관련된 단체를 대표하여 논의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지역원예협동조합의 실무자는 허브 종류나 묘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교육농연구소⁵⁾의 실무자는 씨앗과 교육의 결합, 그리고 이미 씨앗들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초기 합의는 쉽게 이루어졌다.

성급하게 보급소를 만들기보다는 우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며, 구성원들끼리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 특별한 논의가 없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하였다.

초기에는 씨앗보급소나 씨앗도서관(seed library)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였으며, 국내 사례보다는 외국, 특히 미국 사례를 조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 모임도 5~6월 정도가 되면서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고, 진전도 없었다.

무엇보다 모임이 지속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이든 보급소든 단체를 만들자면 돈이 든다는 문제에 이른 것이다. 그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해결 방법이 없으니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결국 다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의 경험으로 세 번째 모임을 구성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모임의 목표를 지역에 씨앗보급소 만드는 것으로 정하고, 그 준비 모임으로 성격을 정했다. 그렇다 보니 소수가 모여 씨앗보급소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 첫째는 씨앗보급소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씨앗보급소의 필요성이나 기존 씨앗도서관·씨앗보급소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그

5) <http://cafe.naver.com/edunongcoop>

이유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그러한 내용인 것도 있지만 모임이 씨앗보급소를 만드는 과정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첫 번째 원인의 결과로 모임은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구성원의 역할이 생겨나지 못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씨앗보급소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고 하겠다.

라. 네 번째 모임

세 번의 모임을 돌아보면 네 번째 모임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외의 사건이다. 세 번까지의 모임이 전 모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니 네 번째 모임은 그것을 해결할 여지가 없다면 모임을 구성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네 번째 모임이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의 조합이 씨앗도서관을 준비하는데 잘 맞았다는 것과 의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인다.

모임은 2013년 말부터 있었다. 모임의 목표는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논의는 세 번째 모임과 비교하여 특별히 현실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림 1] 씨앗도서관 준비회의

외국의 씨앗도서관 운영사례나, 저렴한 비용으로 도서관 비품을 구하는 문제, 각자 확보할 수 있는 씨앗의 숫자 정도를 이야기하였다. 필요한 비품에 대한 이야기도 체계적이지 않고 단편적이었다. 결국 이야기는 2014년 초에 대산농촌재단 농업실용연구에 ‘우리 마을 씨앗도서관 만들기’ 과제를 응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선부는 판단일 수 있지만, 만약 대산농촌재단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네 번째 모임의 결과도 세 번째 모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도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논의되는 내용이 ‘어떤 책을 쓰면 좋겠다’거나 ‘씨앗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많았다.

세 번째 모임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임에서 씨앗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서부터 보관, 분류, 그를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면 다음 모임에서는 실제로 씨앗을 가져와 목록작업을 하거나 분류작업을 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야 했다.

진행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조직하지 못하고, 생각을 주고받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대산농촌재단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직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어찌 되었든 3월 말에 대산농촌재단 농업실용연구과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모임의 성격은 많이 달라졌다. 우선은 각자의 역할이 정리된 것이다. 금창영은 연구책임자로서 전체 연구의 진행과 채종포 운영, 공동연구자들의 의견조정,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연구자 김시용은 씨앗도서관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씨앗도서관 비품, 씨앗의 분류, Database 작업,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오도는 풀무학교 전공부 농업교수로서 지역 씨앗수집, 채종포 운영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신소희는 씨앗도서관에서 씨앗의 보관, 보급사업, 씨앗과 관련된 교육진행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씨앗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전작업

가. 사람들을 조직하자

농사철이 되면서 모임은 힘들어졌지만, 씨앗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씨앗도서관 진행을 알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씨앗의 수집이다. 물론 매달 모임에서는 물품구입이나 행사, 씨앗도서관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초기에 집중한 일은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고, 관심 있는 이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모임에서도 씨앗도서관 만들기가 구체화되면 새롭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진행 주체를 다시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연구과제 전문가 자문을 하시기로 한 김은진 교수님께 ‘씨앗도서관, 지역에서 뿌리내리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부탁드렸다.

아무래도 강연회에는 씨앗에 관심 있는 이들이 올 테니, 그들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씨앗도서관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이렇게 신청한 이들을 분류하여 씨앗수집팀, 도서관운영팀, 씨앗채종팀으로 나누어 각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2014, 8, 26 밝맑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연회에는 지역 분들이 대략 45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강연 분위기도 좋았고, 호응도 높았다. 이때 준비위원회에 신청한 이들은 9명이었으며 신청서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림 2] 강연회 플래카드

하지만 이 9명은 이후에 활동을 같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듯하다. 하나는 신청을 받았지만 정작 기존의 구성원도 한 달에 한 번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9명이 더 모임에 들어오더라도 구체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 시기가 되면서 확인한 사실은 네 번째 모임의 경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

이 진행되고 성과를 축적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생각을 주고받는 수준에서는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간이 씨앗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고민하는 정도이고, 9월 정도가 되어서야 씨앗 수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운 정도였다.

나. 씨앗마실

씨앗마실은 씨앗도서관에서 지역에 씨앗수집 활동을 다니면서 붙인 이름이다. 사실 씨앗도서관 만들기에서 강연회와 함께 가장 주요하게 진행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있었던 작업이다. 이미 씨앗도서관을 고민하면서 씨앗수집은 계획하고 있었으나 김은진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1) 씨앗마실의 목적

씨앗마실은 우선 홍동면에 남아있는 토종 씨앗의 현황을 알아보고, 토종 씨앗의 보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지역 농가의 씨앗을 모아 씨앗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지역에 다시 보급하고자 하였다.

(2) 씨앗마실의 방법

씨앗마실을 위해서 미리 8개 지역으로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각 마을에서 씨앗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분들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방문하였다. 방문할 때는 음료수나 간단한 답례품을 준비하였다.



[그림 3] 씨앗마실

가정을 방문해서는 씨앗의 이름, 씨앗 내력, 수집 경로, 재배 방법, 작물의 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우호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이들에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씨앗의 중요성을 실제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3) 씨앗마실 농가 및 성과

〈표 1〉 씨앗마실 농가와 수집된 씨앗

번호	마실일	씨앗종류	씨앗 보유자	참석자
1	2014.9.19.금	찰수수	전정애	오도, 금창영, 김시용, 신소희, 문수영, 정선옥, 강혜순, 민정희, 이에이
2	2014.9.19.금	참깨	유재희	상동
3	2014.9.26.금	유월태(유월콩), 찰수수	심재순	오도, 문수영, 강혜순, 이에이, 박여연, 김산, 김기홍, 수수, 카야마, 아클라이
4	2014.9.26.금	40일팔, 종콩(메주콩), 조선오이, 김정유월태, 꼬투리가 긴 녹두, 조선도라지	이정재	상동
5	2014.10.10 금	젓팔, 앵두팔	전순진	오도, 강혜순, 문수영, 이에이, 박여연, 정선옥, 김산
6	2014.10.10 금	대추밤콩, 녹두 팔(검은팔/빨간팔)	문병순	상동
7	2014.11.7.금	오갈피콩, 배틀콩, 보리	오순정	오도, 이에이, 김산
8	2014.11.7.금	서숙, 땅콩, 시금치, 갓, 얼룩동부, 반짜이녹두, 참깨, 흙임자(검정깨), 수수, 울금	김정자	오도, 문수영, 김산
9	2014.11.26.수	옛날 선비콩, 하얀팔, 이집트콩(자반조), 각시동부(흰동부)	송성근	오도, 문수영, 강혜순, 박여연, 이에이, 김산
10	2014.11.28.금	좁콩, 옛날녹두, 흰밤콩, 옥수수, 재팔, 옛날아욱, 조선시금치, 청갓, 호박	임순득	오도, 정영희, 강혜순, 김산, 문수영
11	2014.11.28.금	김정옥수수, 콩나물콩	정영희	오도, 강혜순, 김산, 문수영

〈표 2〉 씨앗마실 수집 씨앗의 특징

수집 번호	씨앗 종류	보유자	지역	씨앗 특징	수량
1	찰수수	전정애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종 3대를 얻음. 키가 사람보다 약간 크 지만 휘어지지 않음.	한줌
2	참깨	유재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시어머니 때부터 계속해온 옛 날 참깨 씨앗. 25년 이상 키 우심. 많이 크지 않고 꽃도 계속 피지 않는다고 함.	한줌
3	유월태	심재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40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준 씨앗. 봄에 심어서 6월에 수 확함.	한줌
4	찰수수	심재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키가 작아서 다 익어도 대가 꽃꽂히 서 있음.	한줌
5	40일팔	이정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50년 전에 청양 운곡에서 시 어머니가 농사짓던 씨앗을 계 속 이어옴. 심고 나서 40일이면 수확함	한줌
6	종콩 (매주콩)	이정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반교에 사는 친구에게서 받은 씨앗을 나눠줌. 콩알이 큼.	한줌
7	조선오이	이정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5년 전에 동네친구에게 받은 씨앗. 향이 좋고 맛이 쓰지 않다고 함. 통통한 모양의 조 선오이.	한줌
8	검정유월태	이정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3년 전에 미장원 갔다가 얻 음.	한줌
9	녹두	이정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0년 전에 이웃에게 받은 씨 앗. 고추심고 나서 함께 심음. 꼬투리가 김.	한줌
10	조선도라지	이정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20년 전부터 계속 심어온 씨 앗. 오래될수록 크기가 큼. 예 전에는 도라지 농사를 지었는 데 이제는 먹거나 씨앗만 계 속 받고 계심.	한줌
11	재팔	전순진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5년 전에 공주에 있는 언니가 심던 씨앗을 얻어옴.	한줌
12	앵두팔	전순진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알이 커서 앵두팔이라고 부 름. 일찍 심으면 알이 작고 초 복 넘어서 심으면 알이 굵음.	한줌

수집 번호	씨앗 종류	보유자	지역	씨앗 특징	수량
13	대추밤콩	문병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50여 년 전 시집왔을 때 동네에서 하던 씨앗을 얻어서 계속 심고 계심. 고추 심을 때 심음. 송편 소로 넣거나 밥에 넣어먹기도 함.	한줌
14	찰옥수수	문병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며느리가 20년 전에 친정(경기도 파주)에서 갖고 온 씨앗을 받아서 하고 있음.	한줌
15	재 팔	문병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작년에 동네에서 얻어서 심고 있음.	한줌
16	붉은팍	문병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결혼 후 계속 심어온 씨앗.	한줌
17	녹두	문병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50년 전부터 해온 아주 오래된 옛날 녹두 씨앗.	한줌
18	오갈피콩	오순정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청북에서 한가마 사서 받아온 씨앗. 잎이 다섯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해서 오갈피콩이라고 부름. 고추 심고 열흘 있다가 심어야 추석 때 먹을 수 있음.	한줌
19	배틀콩	오순정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봄에 홍성 전통시장에 있는 반성상회에서 산 씨앗. 모 심고 나서 심는 콩.	한줌
20	보리	오순정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결혼 후 해온 60년 된 보리 씨앗. 엿기름 해먹거나 밥 해먹거나 물 끓여 먹는다고 함.	한줌
21	서숙(조)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작년에 이웃이 구한 씨앗을 나눠주어 올해 처음 재배함. 키가 작고 병에 안 걸림. 5월에 모종으로 심고 9월~10월경 수확함.	한줌
22	땅콩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10년 전에 동네에서 얻음.	한줌
23	시금치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언제부터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받고 있는 씨앗.	한줌
24	얼룩동부 (개 파리동부)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5년 전에 지인에게 받아서 심고 있음. 꼬투리가 아주 김.	한줌
25	반짝이녹두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옛날부터 구해서 심은 씨앗. 다른 녹두와 달리 씨앗이 반짝거림.	한줌

수집 번호	씨앗 종류	보유자	지역	씨앗 특징	수량
26	참깨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10~20년 전에 얻은 재래종 참깨 씨앗.	한줌
27	흑임자 (검은깨)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5월 20일 경에 심어서 3달 후 수확.	한줌
28	메수수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작년에 지인에게 받음. 키는 작지만 이삭이 통통하고 알차 다고 함.	한줌
29	울금	김정자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생강처럼 심어 키움.	한줌
30	겨자치커리	김연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씨를 사다가 뿌렸다가 씨를 받 기 시작함. 톱 쏘면서 매운맛이 남. 잎이 겨자같이 빨간색임.	한줌
31	땅콩	김연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30년 정도 계속 심어 내려옴. 병이 별로 없고 구덩이에 함 개씩 심음.	한줌
32	자주옥수수	김연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결혼 직후부터 심음. 4월에 심어 7~8월에 수확. 강원도 옥수수보다 적음.	한줌
33	시금치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60년 전 결혼 전부터 있던 옛 날 시금치. 이파리가 길고 뽀 족함.	한줌
34	옥수수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한줌
35	개파리동부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옛날부터 계속 있던 씨앗이라 고 함.	한줌
36	준저리콩 (쥐눈이콩)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한줌
37	종콩 (메주콩)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60년 전 결혼 전부터 있던 씨 앗.	한줌
38	파란콩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60년 전에 결혼 전부터 있던 씨앗. 곡식 심는 4월에 심으면 일찍 수확하고 서리태랑 비슷 하게 심으면 11월에 수확함.	한줌
39	결명자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5년 전 동네에서 받음.	한줌
40	서리태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한줌
41	호랑이강낭콩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한줌

수집 번호	씨앗 종류	보유자	지역	씨앗 특징	수량
42	상추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땅에 쏟아져 나있던 것을 채 종해서 심어옴. 옛날부터 내 려온 씨앗이라고 함.	한줌
43	대파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한줌
44	흑임자 (검은깨)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한줌
45	완두콩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옛날부터 손으로 받아온 완두 콩 씨앗.	한줌
46	오월태	강한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봄에 심어 5월에 수확해서 먹 는 이른 콩. 완두콩 심을 때 심음.	한줌
47	서리태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한줌
48	선비잡이콩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옛날부터 있는 씨앗.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심어 옴.	한줌
49	이쁜이 강낭콩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강낭콩 심는 시기에 심으면 됨. 넝쿨강낭콩이 아님.	한줌
50	피마자 (아주까리)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한줌
51	개파리동부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한줌
52	재팔 (적두팔)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한줌
53	가동채 (유채)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한줌
54	아욱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잎이 작고 쪼글쪼글함.	한줌
55	청갯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옛날부터 받아서 키움.	한줌
56	대파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옛날부터 받아서 키운 씨앗. 잎이 부드러움.	한줌
57	오이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한줌
58	도라지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작년에 이웃집에서 받은 씨 앗.	한줌

수집 번호	씨앗 종류	보유자	지역	씨앗 특징	수량
59	홍화	이금남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국내산 홍화 씨앗이라고 함. 외국산은 더 굵고 더 큼. 옛 날 어른들이 뼈가 튼튼해진다고 씨를 갈아서 약으로 썼고 꽃밭에 심기도 함.	한줌
60	옛날 선비콩	송성근	충남 홍성군 전통시장		한줌
61	흰팥	송성근	충남 홍성군 전통시장		한줌
62	병아리콩 (이집트콩)	송성근	충남 홍성군 전통시장	자반조라고 부르기도 하며 한 국에서는 재배가 어렵다고 함.	한줌
63	각시동부 (흰동부)	송성근	충남 홍성군 전통시장	넝쿨이 지기 때문에 독에 심 어 그물을 쳐주면 좋음.	한줌
64	종콩 (메주콩)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윗대 어른들부터 내려온 메주 콩 씨앗임. 친정에서 계속 심 어온 씨앗.	한줌
65	녹두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옛날 녹두. 거름이 좋으면 알 이 굵어짐.	한줌
66	흰밤콩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메주콩보다 일찍 5월에 심음. 밤콩은 눈이 새가맘.	한줌
67	찰옥수수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20년 정도 재배해 옴. 삼박굴에 서 얻어옴. 맛있고 알이 작음.	한줌
68	재팥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옛날부터 재배. 죽이나 떡해 먹음. 빨간팥보다 맛있음.	한줌
69	아욱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어릴때부터 심음. 잎이 오골 오골함.	한줌
70	조선시금치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한줌
71	청갯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옛날부터 재배해 옴.	한줌
72	호박	임승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한줌
73	김정옥수수	정영희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올 초에 동네에서 얻은 옥수수 씨앗. 처음에 찰옥수수인 줄 알 았으나 다른 씨앗이었다고 함.	한줌
74	콩나물콩	정영희	충남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철원에서 농사짓는 친정아버 지에게 얻어옴. 메주콩 심을 때 심어서 11월에 수확하는데 오랫동안 밭에 놔두어도 꼬투 리가 터지지 않음.	한줌

(4) 씨앗마실 평가

대부분 2시간 내외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씨앗을 관리하고 있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씨앗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골살이나 농사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느낀 부분은 각 마을에서 두 사람 정도로 고르고, 주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특별한 계기 즉, 친정어머니께서 주었다거나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보관중인 씨앗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씨앗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립 유전자원센터를 통해 공식명칭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할머니들마다 씨앗을 계속 이어온 동기나 얻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텅달아 다양한 씨앗들을 보여주고, 나눔을 받는 것은 쉬웠으나 전체적으로는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았다.

처음 씨앗마실을 통해 앞으로는 1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씨앗마실을 진행하는 것이 씨앗 수집에 용이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매년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씨앗마실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 홍성씨앗도서관 개관준비

가. 씨앗도서관 장소 선정과 홈페이지

씨앗마실이 정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씨앗도서관 개관준비를 했다. 먼저 도서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나누었다. 초기에는 마을에 있는 밝맑도서관⁶⁾의 일부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씨앗도서관은 우선 주차공간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사무공간과 전시공간 그리고 최소한 냉장고 2~3대를 둘 수 있는 수납공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적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씨앗도서관이 만들어지더라도 한동안 상근자가 없을텐데 부정기적으로 방문자들이 있거나, 문의가 올 때 밝맑도서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6) 밝맑도서관 안내 <http://cafe.naver.com/hongdonglibrary>

하지만 밝맑도서관에서 공간을 내주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조직인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상근자문제도 지역에 젊은이가 1년 정도 급여 없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을 해주기로 하면서 갯골생태연구소 건물에 공간을 얻어 씨앗도서관을 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림 4] 홍성씨앗도서관

12월이 되면서 두 주에 한번 정도 모여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였다. 우선은 2015년 2월 28일을 개관일로 잡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개관일을 전후하여 밝맑도서관과 함께 ‘씨앗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씨앗주간에는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씨앗도서관이 가진 씨앗과 사진, 관련 책들을 전시하였다.

2014년 12월 중순정도에 파악한 바로는 씨앗도서관에서 보유한 씨앗이 대략 180여종⁷⁾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관일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였다. 홈페이지⁸⁾를 만드는 작업이나 분류카드, 팸플릿, 플래카드 등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도서관 사이트를 기획할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단순히 씨앗도서관의 교육이나 행사, 활동을 알리는 통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록과 자료를 축적하여 장기적으로는 씨앗도서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온라인 씨앗도서관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운영에

7) 풀무학교전공부 50여 종, 씨앗마실 50여 종, 금창영 80여 종

8) 홍성씨앗도서관 <http://hs-seed.com/>

서 그만큼의 여력은 없었다. 기존의 체제로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듯하고, 담당자가 따로 정해지거나 도서관 상근자가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다.

〈표 3〉 홍성씨앗도서관 사이트 구성

Main	씨앗도서관	씨앗이야기	씨앗농사	씨앗마실	함께심기
category	걸음걸음 하는 일	씨앗공부 밑줄긋기	심고 기르기	2014년	알림과 나눔 반가운 소식 함께하는 방법

나. 회원 문제

1월 중순이 되면서 도서관 회원체계를 정리하였다. 씨앗도서관을 준비하면서 회원의 의무와 권리, 혜택, 회비와 관련된 문제는 수시로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결국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구체적인 논의와 틀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도 역시 실제 상황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경우이다.

이후 회원체계의 변화는 씨앗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다루겠으며 여기서는 처음 합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연회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매달 월회비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씨앗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된 회원들에게 월 회비를 최소한 5,000원 정도씩이라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도서관에서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소식지를 보내주거나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농한기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각자 생활로 돌아가는 농번기에는 기본적인 모임도 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무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소식지를 전담하는 일꾼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후원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연 회비는 최소 10,000원에서 30,000원/50,000원/100,000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몇천 원 정도 약정한 경우도 있다. 항목 이외의 회비는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회원이 되면 씨앗을 분양받을 수 있고, 씨앗도서관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강좌에 참석할 기회를 주는 정도로 정했다. 물론 금액에 따른 차별은 두지 않았으며, 본인이 회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된다는 의미가 강했다.

이때 합의하기로는 회원 1인당 1년에 5가지 씨앗을 빌릴 수 있고, 반납을 약속하지만 혹 반납받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제제는 없으며, 나누는 양은 보유한 씨앗의 양에 따라 조절되 1년 농사를 지어 그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양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4월 말에 마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인 모종 장날에 씨앗도서관 이름으로 참가하여 회원모집과 기존 회원들에게 씨앗과 모종을 같이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종은 2~3종류의 가지, 6~7종류의 토마토, 6~7종류의 고추를 2월에 파종하기로 하였다.

작은 씨앗을 품고 있는 홍성씨앗도서관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으로 씨앗을 피웁니다.
지역의 씨앗을 지키고, 함께 농사지으며, 건강한 삶을 나누길 바랍니다.
홍성씨앗도서관 2015년 회원이 되어 주세요! :)
회원이 되시면 홍성씨앗도서관 씨앗을 빌려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씨앗도서관의 교육,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
직업/학교	이메일
주소	
회원비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 (원)
연락처	농협 351-0781-0446-03 신협 132-084-803684 (예금주:문수영)
농사영역	전업농 / 텃밭농 / 도시농 / 교육(학교)농 / 기타 / 농사 안 지어요.
가입여부 *	
바라는 점	

2015년 월 일

[그림 5] 회원가입양식

5. 홍성씨앗도서관 개관행사

2015년 1월 중순부터는 대부분의 일이 개관행사에 맞추어졌다. 리플릿, 사진패널, 영상, 음료와 다과, 행사진행, 플래카드, 초청명단, 역할과 순서 등 모든 부분이 회의에서 기획되고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씨앗도서관 전시와 관련해서도 씨앗을 정선하고 분류하고 분류카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씨앗도서관 개관행사는 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모두 4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초청장을 미리 보내고 다과도 준비하였다.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2부에서 진행하는 씨앗마실 토크콘서트였다. 씨앗마실을 하면서 씨앗에 대한 생각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농업기반으로서의 씨앗에 대한 중요성보다 농부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씨앗으로 무게중심이 변하였다. 그 자부심을 할머니들께 직접 듣고 싶었다. 그리고 씨앗마실 과정에서 할머니들께 씨앗도서관 여는 날 떡도 하고 잔치를 할테니 꼭 오시라는 초대도 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할머니가 초청에 응해주셨고, 그 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면 그 어떤 강연보다 재미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림 6] 홍성씨앗도서관 개관행사 포스터

대략 80여명이 참석한 홍성씨앗도서관 개관식은 한마디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도 꽤 많았다. 분위기도 호의적이었고, 진행하는 이들도 예상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당황스러웠다. 개관행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1부 씨앗이야기 : 씨앗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눈다
 - 금창영; 내 씨앗으로 농사짓기
 - 김시용; 씨앗도서관 교육 사례
 - 오 도; 씨앗받기, 이렇게
- 2부 씨앗마실 토크콘서트 : 할머니들과 함께 씨앗이야기를 나눈다
- 3부 씨앗도서관 집들이 : 도서관에서 떡과 음료를 나누고, 도서관을 둘러본다.
- 4부 다큐 '자연농(Final Straw) 상영회 : 다큐를 상영하고 감독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미리 할머니들을 모셔와서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1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었다. 그것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온 까닭도 있지만 진행의 미숙함도 있었다. 토크콘서트 시간이 부족하여 의도한 만큼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씨앗도서관 개관 행사를 마치고, 평가와 함께 3월 중순에 도서관 운영위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씨앗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림 7] 씨앗마실 토크콘서트(밤맑도서관)

〈표 4〉 씨앗도서관 개관까지의 추진내용

과정	구분	연도	비 고
논의단계	1차 모임	2010년	GMO이야기, 공부하는 모임, 개방된 구조
	2차 모임	2011년	농업인 중심, 씨앗나눔행사, 개방된 구조, 주제를 정해서 진행
	3차 모임	2013년	3인으로 구성 씨앗보급소를 만들기 위한 모임
	4차 모임	2013년	5~6인, 씨앗도서관 만들기를 진행
씨앗도서관 개관 사전작업	강연회	2014년 8월	김은진교수, 씨앗도서관. 지역에서 뿌리내리기. 45명 참석, 씨앗도서관준비위원회 구상은 진행되지 못함
	씨앗마실	2014년 9월~11월	8개 지역 11곳, 50여 종의 씨앗 수집. 사진, 동영상, 녹취록을 만듦
	개관준비	2014년 11월~ 2015년 2월	장소선정, 홈페이지 만들기 씨앗분류카드, 팸플릿, 플래카드, 초청장, 회원가입양식 씨앗저장고, 씨앗봉지, 씨앗저장 용기, 씨앗봉지 포장기, 씨앗전시대 구입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의 모종작업 밤맑도서관에서 한 달간 씨앗주간 운영 도서관 개관식 준비
씨앗도서관 개관식		2015년 2월 28일	씨앗이야기 씨앗토크 콘서트 씨앗도서관 집들이 다큐 상영회

6. 씨앗도서관 운영

지금까지는 씨앗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조직, 씨앗도서관 개관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 개관 이후 운영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연히 당초 생각과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도 적지 않다.

씨앗도서관은 2월 말에 개관식을 하고, 3월 중순에 운영위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준비 주체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과 인물들이 충원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과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 씨앗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구 성	인 원	하 는 일
도서관 실무자	1	도서관 운영과 실무
교육	3	씨앗과 관련된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채종	3	채종포운영
씨앗수집	2+ α	씨앗마실 운영

α : 풀무학교전공부 씨앗동아리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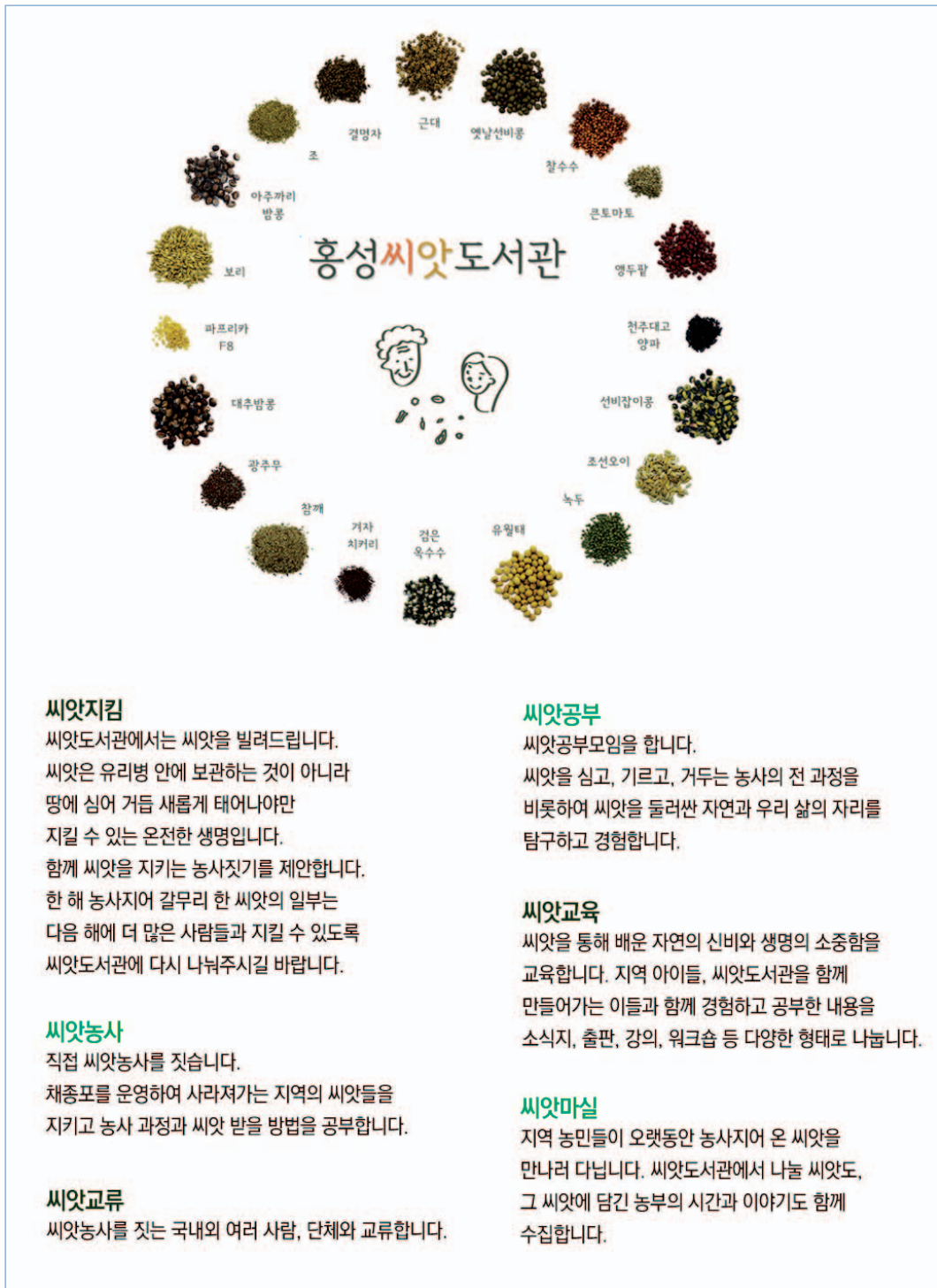
홍성씨앗도서관에서는 개관과 함께 크게 6가지로 씨앗도서관이 해야 할 일을 정했다. 씨앗지킴, 씨앗농사, 씨앗마실, 씨앗공부, 씨앗교육, 씨앗교류가 그것이다. 씨앗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가. 씨앗지킴

씨앗지킴은 씨앗을 보관하고, 빌려주고, 다시 받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씨앗도서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다.

(1) 씨앗보관

처음 홍성씨앗도서관은 180~200여 종의 씨앗으로 시작하였다. 씨앗을 수집하고 분류하면서 씨앗도서관에서는 토종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씨앗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씨앗이 모두 토종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수집된 씨앗이 어디서부터 유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다. 토종이 ‘그 땅에서 나는 본래의



[그림 8] 홍성씨앗도서관이 하는 일(포스터)

종자'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씨앗도서관에 있는 것 중에는 그 의미에 적합하지 않은 씨앗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 하나 문제는 가끔 시중에서 파는 씨앗을 개별 농가에서 여러 해에 걸쳐 선발과 고정을 통해 이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씨앗들에 대해서는 씨앗도서관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는 문제도 있었다. 이것은 토종은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정부보급종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개량된 씨앗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토종'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은 생명력이 강하고, 작으며, 원래의 맛이 살아 있고, 수확량은 적으며,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이야기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지과 작물이나 십자화과 작물에서는 생명력도 크게 강하지 않고, 병해에 취약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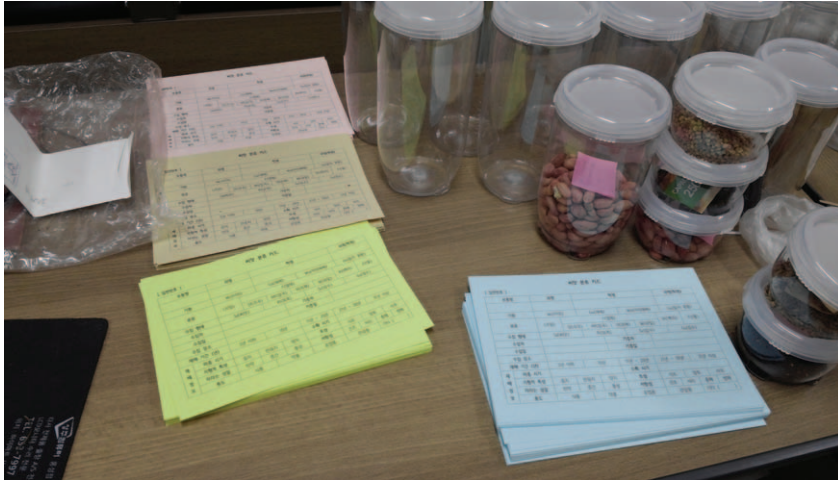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다수확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농부의 의지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앗도서관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씨를 받아 유지할 수 있는 씨앗들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또 한 가지 결정한 내용은 씨앗도서관에서는 보관에 집착하기보다는 매해 심어지고 그 결과물을 보관하는 방식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전자원센터는 산업적인 이용이나 보존에 의미가 있겠지만, 시골의 씨앗도서관은 그보다 지역 농민들에게 다양한 씨앗을 심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씨앗 받는 농사를 확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씨앗이 더욱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모든 씨앗이 매해 심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결국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 용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하나는 상시적인 전시를 위해 소량을 담은 유리병과 냉장보관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이다. 플라스틱 용기는 용량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구비하였다. 아직은 도서관이 초기라 작은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큰 용기의 사용빈도도 늘어날 것이다.

등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방문자들이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냉장고에 들어가서도 잘 보이고, 밀봉이 잘 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유리보다는 플라스틱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림 9] 용기와 분류카드

(2) 빌려주는 문제

씨앗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은 씨앗도서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기존 대부분 씨앗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 씨앗을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보통 모임이 관리하는 종자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행사장에서 나누어주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씨앗의 특징이나 재종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은 일 년에 1~2회 정도이고, 분기나 상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문제는 나누어주는 행사의 횟수가 적을수록 회원들이 몰리게 되고 관리 또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홍성씨앗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상시로 씨앗을 빌려주고, 이와 더불어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했다. 3월과 4월에는 모종도 같이 나누어주었으며, 그 이후에는 그달이나 다음 달에 파종하는 씨앗들을 나누어주고 있다.

씨앗 나눔의 날 행사는 미리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시간과 장소, 나누어주는 씨앗을 공지한다. 초기에는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지 않았으나 이후 기억하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우선 매달 꾸준히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주말이나 휴일보다는 주 중에 하는 것이 참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씨앗 나눔하는 장소가 주로 밝맑도서관이기 때문에 주 중에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매달 행사를 하다 보니 회원들이 욕심을 내어 많이 가져가려는 경우는 없었다.



[그림 10] 씨앗 나눔의 날 포스터

결국, 처음 생각했던 회원 한사람에게 5가지 씨앗을 빌려준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빌려 갈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었다.

빌려주는 양은 앞으로 각 작물마다 기본단위를 정하고 그에 맞추어 포장하여 나누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같이할 생각이다.

(3) 반납하는 문제

씨앗도서관이 아직 1년을 완전하게 운영해보지 않아 씨앗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을 본다면 반납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다른 단체나 모임에서도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씨앗도서관이 판단하기에는 회원들이 처음이기도 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먹는 부분까지만 해보는 경우가 많으며, 씨앗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반납을 받더라도 다시 그 씨앗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씨앗 중에는 특별히 관리하여 혼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개별 회원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따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씨앗도서관에서 나누어주는 씨앗이 어느 정도 순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반납받은 씨앗은 따로 관리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지역 직판장을 통해 소량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처음 씨앗도서관을 만들 때 세웠던 원칙인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든 것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반납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 돌려받은 씨앗도 활용방법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4) 분류카드 문제

씨앗도서관을 준비하면서 보유한 씨앗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씨앗의 분류는 우선 홍성씨앗도서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분류카드와 Database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하였다. 장기 목표로는 DB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하여 회원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분류카드는 작성하고 있지만 DB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트에서 구현하는 부분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작업이 가능한 이를 찾아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이렇게 완성이 된 것도 작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단되고 넘겨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다시 적합한 이를 구해 진행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씨앗도서관 분류카드는 홍성씨앗도서관 일련번호표에 맞추어 작성하고 있다. 처음 분류카드를 준비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사항, 재배법, 이용방법, 요리법까지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아직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적어 관리하는 정도이다.



[그림 11] 씨앗의 고유번호

씨앗 분류 카드

[일련번호] :

보통명		과명		학명				과명(학명)			
기원		Wc(야외)		Go(재배)		Wo(야외재배)		Un(알지 못함)			
분류	Lf(잎)	F(열매)						Rl(뿌리)	Fl(꽃)		
		Sf(주곡)		Mf(잡곡)		H(과채)				W(과일)	
수집 형태		Sd(씨앗)		Pl(묘목)		Sc(삽수)		Gs(접수)			
수집자						가증자					
수집일						가증일					
수집 장소											
재배 기간 (년)		5년 이하		10년		11년 ~ 20년		21년 ~ 30년		31년 이상	
재 배 정 보	파종 시기					수확 시기					
	지형적 특성	음지	반음지	양지		토성		식도	양도	사도	
	자라는 성질	빈약	중간	풍성		저항성		건조	서리	충해	병해
	용도	식용		약용		공업용		관상용		기타 ()	

[그림 1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씨앗 분류 카드

재배법을 비롯한 요리법 등을 같이 적고자 한 이유는 우선 그 씨앗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등록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방문하여 씨앗을 빌려가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복사하여 준다면 유용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문하여 빌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나눔 행사 때 대부분 씨앗을 나누어주고 있다.

분류카드는 실무자가 관리하기 쉽도록 카드의 색깔을 4가지로 나누어 만들었다. 노란색 분류카드는 잎채소, 파란색 분류카드는 열매채소, 갈색 분류카드는 뿌리채소, 분홍색 분류카드는 꽃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분류카드가 실무자가 보기에는 편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분류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다른 내용을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출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우선 씨앗도서관에서 대출카드를 만들고, 그곳에 아주 간단한 씨앗 재배와 관련된 정보와 대출정보를 입력해둔다. 회원이 씨앗을 빌려 갈 때 씨앗과 관련된 정보와 대출정보를 출력해서 주면 된다. 대출카드는 씨앗마다 하나씩 만들고 회원 각자에게도 회원대출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어떤 씨앗을 빌려 갔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회원대출카드의 내용은 회원과 도서관이 공유해야 한다.

첨부한 분류카드는 초기에 구상했던 내용이다.

〈표 6〉 씨앗도서관 분류카드(예: 상추)

보통명		과명		학명				과명(학명)	
상추 (상추, 생치, 부루, 생추)		국화과		Lactuca sativa L.				Compositae	
기 원	Wc (Wild Collected)	분류	Lf (Leaf)	staple food	주곡	수 집 번 호		수 집 형 태	Sd (Seed)
	Go (Garden Origin)		F (Fruit)	maslin food	잡곡				Pl (Plant)
	Wo (Wild Origin)		Rt (Root)	herbaceous	과채				Sc (Scion)
	Un(Unknown)		Fl (Flower)	woood	과일				Gs (Graft Scion)
수집자					기증자				
역사(History)									
날짜	대여자	장소		수량			상태		

〈표 7〉 씨앗도서관 씨앗 대여자 목록(회원카드로 따로)

대여자	이름	
	주소	
	전화	
	e-mail	

이어지는 내용은 재배법과 관련된 도표이다.

식물 이름

일련 번호

심는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파종(씨 뿌리기) ■ 정식(아주심기) ▲ 수확(거두기)

식물의 형태

(식물체 사진 또는 그림 첨부)	- 줄기 :
	- 뿌리 :
	- 잎 :
	- 꽃 :
	- 열매 :

분포도 / 재배조건

(지도 첨부)	흙	모래	진흙	황토
	자라는 성질	빈약	중간	풍성
	저항성	건조	서리	충해 병해
	수확량	적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번식 방법	씨앗	잡목	구근 괴경 기타

그 외의 추가사항

유사종	관련생물종

작물의 사용에 관한 부분으로 요리법을 다루고 있다.

맛 설명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자세한 설명						
이용	생것 굽기 튀김 장아찌 찜 건조물 기타 자세한 설명						
요리법	(사진 첨부 - 완성된 요리사진)			(사진 첨부 - 준비물 도구 부재료 등)			
	준비물						
	조리과정						

아래 내용은 씨앗고유번호와 씨앗분류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준표이다.

〈표 8〉 씨앗분류카드 작성 기준표

구 분	설 명				
예리관의표준	기원 (Source)	Wc (Wild Collected)	야외		야외에서 수집한 경우
		Go (Garden Origin)	재배		재배지에서 수집한 경우
		Wo (Wild Origin)	야외 재배		야외에서 수집한 씨앗 또는 식물을 재배지에서 수집한 경우
		Un(Unknown)	알지 못함		알 수 없는 경우
	분류 (Taxa)	Lf (Leaf)	잎		식용 가능한 부위가 잎인 경우
		F (Fruit)	staple food	주곡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식인 경우
			maslin food	잡곡	주식에 섞어 먹는 식물인 경우
			herbaceous	과채	풀(1년초, 2년초, 다년초)의 열매
			wood	과일	나무(교목, 관목, 만경목)의 열매
		Rt (Root)	뿌리		식용 가능한 부위가 잎인 경우
		F1 (Flower)	꽃		식용 가능한 부위가 꽃인 경우
	수집번호 (Collected number)	년도 (year)	2014		수집한 년도
		순서 (Order)	0001~9999		수집한 순서
	수집형태 (Collected type)	Sd (Seed)	씨앗		씨앗으로 수집한 경우
		P1 (Plant)	묘목		묘목(식물)으로 수집한 경우
		Sc (Scion)	접수		접수(가지)로 수집한 경우
		Gs (Graft Scion)	접수		접수(가지)로 수집한 경우
보통명(국명)		상추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지방명을 함께 표기		

예)	기원	분류	수집번호	수집형태	쓰기	보통명
상추	GO	Lf	2014-0001	Sd	GoLf2014-0001Sd	상추
토마토	GO	Fh	2014-0002	P1	GoFh2014-0002P1	토마토
당근	GO	Rt	2014-0003	Sd	GoRt2014-0003Sd	당근
한련화	GO	F1	2014-0004	P1	GoF12014-0004P1	한련화

(5) 회원체계

홍성씨앗도서관 회원은 1년 후원회비를 내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지금은 대략 60명 정도 이고, 홍성을 제외한 외부지역 회원들이 20명 내외이다. 앞부분에도 간단하게 적었지만 회원이 되면 1년에 5가지 씨앗을 분양받을 수 있고, 도서관 소식을 받으며, 강좌나 채종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씨앗도서관이 아직 초기이다보니 씨앗을 분양받고, 채종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외 씨앗과 관련된 정보나 씨앗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지는 못했다. 다만 연말에 운영보고회를 하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씨앗도서관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홍성지역 이외에 살면서 씨앗이 필요해서 일회성으로 가입하거나 씨앗도서관에 대한 후원의 의미로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정보나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회원가입은 평소보다는 행사가 있을 때 많고 회원의 구성은 농촌지역인데도 지역 단체나 텃밭을 하는 이들이 많고, 전업농은 10~20%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업농들은 씨앗을 빌려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씨앗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씨앗도서관이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후원회비 받는 수입으로 씨앗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내년에는 최소 월 5,000원 정도 정기회비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초기에는 수입이 많지 않고, 또 그만큼 실무자나 운영위원회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6) 운영위원회와 재정문제

씨앗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다. 매달 운영회의에는 도서관 실무자와 운영위원 4~5인 정도가 참석하여 회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에 소속된 하부 인원들까지 잘 관리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농번기에는 모임이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역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씨앗도서관은 아직까지 실무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거기다 사무실 사용료와 각종 세금이 발생한다. 운영비는 지금까지의 후원회비로 맞추고 있다. 그 외 소모

품비용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며, 씨앗마실이나 견학과 관련된 비용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후에는 씨앗마실을 통해 얻은 성과를 소책자로 발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보완할 생각이다.

〈표 9〉 씨앗도서관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품

물 품	수 량	비 고
씨앗전시대	5개	씨앗 전시용
씨앗저장고	3개	음료수 냉장고
지퍼팩(중형)	1,600매	씨앗나눔용
지퍼팩(소형)	2,750매	씨앗나눔용
씨앗포장지	2,000매	약포장지
채망	3개	대, 중, 소
씨앗주걱	1개	
씨앗포장기	1개	약포장기
밀폐용기	100개	대, 중, 소
외장하드	1개	데이터저장용
전자저울	2개	1kg, 5kg
유리병	100개	씨앗 전시용

나. 씨앗농사

씨앗도서관에서 하는 씨앗농사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여 씨앗의 양을 늘려가는 것을 말한다.

(1) 채종포 운영

2014년에 세 곳에서 채종포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므로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채종포를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농민들을 조직하여 농민이 개별적으로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민채종포 운영은 진행되지 못했고, 도서관 자체의 채종포만이 진행하였다. 대략 100평 정도의 면적에서 도서관 실무자와 풀무학교전공부 2학년 학생이 같이 씨앗농사를 지었다. 이곳에 심어진 씨앗 종류는 대략 80여 가지이고, 꼭 증식해야 하는 것과 씨앗 수명이 짧은 것들을 주로 심었다.

씨앗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채종포 운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씨앗의 양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씨앗도서관에서 검증된 씨앗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씨앗도서관에 속한 채종포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 농가와 단체에 씨앗을 위탁하고 다시 기증받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러한 농가와 단체를 모으고, 그들과 씨앗도서관이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다. 씨앗마실

씨앗마실은 지역 농민들에게 씨앗을 수집하는 일이다.

씨앗마실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씨앗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씨앗도서관을 준비하면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다. 다만 씨앗마실을 통해서 수집되는 씨앗들은 기본적으로 양이 적어 한해는 채종포에서 증식한 다음 나누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씨앗마실은 당연히 씨앗도 수집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들, 녹취록이라는 성과물이 생긴다. 씨앗도서관이 현재 상태로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씨앗마실의 결과물은 매우 소중하다고 하겠다. 이 성과물을 가공하여 소책자나 소식지에 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씨앗마실을 같이 한 이들은 대부분 재미있어하고 씨앗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그래서 씨앗마실에 회원들을 좀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여 또 다른 교육의 방식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 씨앗공부

씨앗공부는 씨앗과 관련된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일 테지만 실제로 조직이 되지는 못했다. 다만 씨앗도서관 차원에서 씨앗과 관련한 도서목록을 만들었다.

모임을 조직하지 못한 이유는 그저 씨앗과 관련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따라서 단순히 씨앗에 대한 공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나 목표를 정해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씨앗도서관이 재배하고 있는 토종 벼 11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농사도 같이 진행하는 모임을 조직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마. 씨앗교육

씨앗교육은 지역의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씨앗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식지, 출판, 강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이다.

씨앗도서관에서는 개관하고 첫 해에 씨앗교육과 관련하여 채종 워크숍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씨앗 동아리와 함께 1년 계획으로 4H 학습활동을 운영하였다.

(1) 채종 워크숍

씨앗도서관에서는 2015년에 세 번의 채종 워크숍을 하였다. 채종 워크숍은 미리 날짜와 장소, 채종하는 작물을 정해 회원들에게 알린 후 진행하였다. 직접 채종해본 경험이 없는 회원이 많아서 모임에서는 분위기도 좋고, 호응도 좋았다.



[그림 13] 토종씨앗 채종 워크숍

씨앗도서관을 준비하는 초기에는 간단하게나마 채종과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이었지만 하지 못했다. 그나마 채종 워크숍을 진행함으로 회원들과 채종이라는 경험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회차를 더해가면서 간단하게나마 유인물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간단한 책자를 만들 계획이며, 최소한 분기별로 진행하고, 실습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표 10〉 채종 워크숍

	날 짜	작 물
1	6월 17일	무, 시금치, 배추 등
2	8월 8일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수박, 참외 등
3	11월 5일	호박, 콩, 벼 등

(2)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4H 학습 활동

풀무학교 고등부 내에 있는 씨앗동아리 회원 6~9명 정도와 1년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우리 씨앗 지킴이’ 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진행은 씨앗도서관 운영위원인 한동혁과 김시용이 하였다.

〈표 11〉 4H 학습활동

일 정	항 목	세 부 내 용
4월 2일	교육내용	일정소개 및 작물관찰법 익히기
4월 4일		관찰내용 확인 및 문헌 정보 찾기
5월 2일		관찰내용 확인 및 번식시험
5월 4일		관찰내용 확인 및 작물관리법 익히기
6월 2일		농민에게 배우는 씨앗농사 및 인터뷰 (금창영)
6월 4일		씨드림 씨앗도서관 견학
7월 2일		홍성 씨앗도서관 채종 워크숍 참가
9월 2일	전시준비	홍성군 4H 대회 전시 준비
9월 4일		홍성군 4H 대회 전시 준비
10월 2일		홍성군 4H 대회 전시 준비
10월 4일	전시참가	홍성군 4H 대회 참가, 충남 4H 대회 참가

작물은 고추와 토마토로 정하고, 싹이 나는 것부터, 본 잎이 나고, 자라 씨앗을 맺고 그것을 채종하는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4H 활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충남도 학교4H활동 경연대회에서 과제 활동 특별상을 받기도 하였다.

바. 씨앗교류

씨앗교류는 씨앗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들과 교류하는 일이다.

초기 목표는 씨앗과 관련된 모임이나 단체와 교류를 하는 것에서부터 씨앗과 관련된 행사, 다른 지역에서 씨앗도서관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것까지 구상하였다.

씨앗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여러 단체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몇 번에 지나지 않았다.

우선은 2015년 4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전국토종씨앗나눔축제에 참여하여 홍성씨앗도서관을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행된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운영위원 2인이 씨앗도서관을 만드는 일과 씨를 받는 농사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다음으로 부산귀농학교에서 씨앗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견학을 진행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는 씨드림⁹⁾에서 운영하는 채종포를 견학하였다. 이 견학에는 대략 10명 정도 참석하였는데, 회원과 풀무학교 학생들이었다. 견학을 통하여 씨드림의 운영과 채종포를 둘러보고 씨앗도 몇 가지 나눔을 받았다.

7. 앞으로 씨앗도서관이 보강해야 할 부분

씨앗과 관련된 고민에서 결국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가. 활동정리

씨앗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진이나 영상,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정리하여 자료화하는 작업은 아직 하지 못했다.

나. 소식지 발행

씨앗도서관의 활동이나 씨앗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9) <http://cafe.daum.net/seedream>

다. 재정사업

씨앗도서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는 후원회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재정사업- 씨앗도감, 채종매뉴얼, 모종 판매 등을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미미하였다.

〈표 12〉 씨앗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상과 실제, 향후 과제

전체운영	세부사항	계획	실제 운영	향후 계획
씨앗지킴	씨앗임대	1인 5종	매달 나눔의 날 운영	매달 씨앗 나눔의 날을 중심으로 씨앗을 임대
	씨앗반납	반납을 받고 다음해에 다시 나누어줄 계획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반납을 의무로 하지 않고 반납 받은 씨앗은 식용이나 판매
	씨앗분류	분류카드	분류카드는 간소하게	분류카드와 함께 대출카드를 작성
		Database Program	실행 못함	완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
	회원체계	1년 후원회원	1년 후원	매월 회비 납부 방식
	재정문제	회비 수익사업	후원회비	책자발간을 통한 수익사업
	운영위	단위별 사업	운영위원들 중심	각 단위 사업을 내실화
씨앗농사	채종포	직영+농민	직영만 운영	직영 면적을 늘리고 농민위탁도 운영
씨앗마실	씨앗마실	홍성전체로 확대	홍동을 중심으로	홍성 전체로 확장, 교육의 일환으로 확대
씨앗공부	공부모임	주제별 모임	실행 못함	토종벼 공부모임을 시작으로 주제를 정해 확대
씨앗교육	채종워크숍	작물별진행	3회 진행	분기별로 체험을 첨가하여 책자발간
	교육 프로그램	연령대별	고등학생만	초등, 중등, 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씨앗교류	타단체와 교류	다양한 단체	축제참가, 조언, 견학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기 타	일상활동			활동 정리, 홈페이지 관리
	회원사업			소식지발행
	재정사업			책자발간 - 씨앗도감, 채종매뉴얼, 모종판매

마무리하며

TV 프로그램이나 신문에서는 잊힐만하면 씨앗의 중요성에 대한 특집을 다룬다. 이야기는 주로 ‘여러분이 아직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나중에 큰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일반인들이 씨앗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씨앗이 나중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지와는 상관없이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한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씨앗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종자 주권이나 생물 다양성일까? 아니면 금보다 비싼 경제적 가치일까? 과연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하지만 매해 씨를 뿌리는 농민들은 왜 씨앗을 사서 농사를 지을까?

씨앗도서관을 생각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처음 씨앗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약간의 책임감과 올바른 농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은 씨앗의 중요성을 왜 모르시는 걸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약간의 우월감도 있었다. 그러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본인도 씨앗이 중요하니까 그럴거라고 생각했지 정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저 매년 씨앗 값이 오르는 문제나 유기농이라면 씨앗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정도가 대답이지 않았을까?

그 해답은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셨다. 할머니들은 종자주권이나 생물다양성, Golden Seed Project를 몰라도 수십 년 씨앗을 이어오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할머니들은 토종이라 크기도 작고, 볼품 없고, 수확량도 적은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계신 걸까?

할머니들께서 찬찬히 일러주시지 않았으니 확실치는 않지만, 그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그 씨앗과 수십 년 같이한 추억이 너무 좋아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것이 농부가 계속해서 농사짓게 하는 자부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몸 쓰는 일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일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씨앗도서관을 만들 때는 또 그 버릇이 도져 머릿속으로 멍게멍게 도서관을 그리고 지우는 일을 반복했다. 결국은 일이라는 것이 때가 있듯이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았다. 비록 계획했던 많은 부분이 실제 씨앗도서관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변화를 거쳤지만 이 경험이 각자의 지역에서 씨앗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갯골생태농업연구소, 『우리마을입니다』, 그물코(2010).
2. 충남발전연구원+홍동마을 사람들, 『마을공화국의 꿈, 홍동마을 이야기』, 한티재(2014).
3. 박지은, 『씨앗으로부터』, 모심과 살림연구소(2012).
4. 김정섭(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제23집 2호.
5. 김정섭·조미형(2013), “농어촌의 지역사회복지와 협동조합: 체계와 생활세계를 가로질러”, 『농어촌복지연구』 제11호.
6. 안완식, 『괴산군 작물 토종자원 도감』, 흙살림(2010).